

광주 고교 학생부 전면 감사

시교육청, 66개교 ... 임의수정·추가 입력·삭제 집중 점검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인문·실업계 고교 전체 학교의 학생부(생활기록부) 관리 실태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벌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8일 전남여고 등 5개 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7월말까지 광주지역 66개 고교(인문·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조작 등 부실 관리실태를 집중 감사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정기감사 등을 통해 교과(성적)·비교과(학생부) 영역 관리 실태를 점검한 적은 있지만,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부를 살피는 경우는 처음이다.

감사팀은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일선 학교를 순회, 점검한다.

중점 감사대상은 1,2,3학년 학생 가운데 학생부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다. 입학사정관계 확대에 학생부 기록이 중요해지면서 고1·2 때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시에 유리하게 바뀌주는 대표적 사례다.

예컨대 대입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로지도나 독서 등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 등의 내용을 임의수정하거나 추가 입력 또는 삭제한 사례가 포함된다. 장래희망을 뚜렷한 이유없이 변경하는 경우도 감사 대상이다.

점검은 생활부에 애초 적힌 내용을

변경한 뒤 그 근거로 남기는 정정대장을 토대로 기록내용 변경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문제는 학교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 부실 관리와 관련해 교장·교감·교사 29명을 경징계(감봉·견책)하고, 198명에 대해선 주의·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는 귀 먹은’ 어린이 많다

전남대병원 분석 ... 난청환자 매년 20~30% 늘어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난청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교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2003~2010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4233명의 환자 가운데 50~70대가 1931명으로 45.6%를, 19세 이하 환자는 1137명으로 26.9%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 환자가 2416명(57.1%)으로 여자 환자 1817명(42.9%)보다 많았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가 환자는 2003년 51명에서 2006년 79명, 2007년 103명, 2009년 125명, 2010년 144명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0~30% 가량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정부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이 난청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는 “감각신경성 난청도 원인에 따라 예방할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더 이상의 진행을 막고 때로는 청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MP3, 휴대전화, 자동차, 비행기, 각종 전자음 등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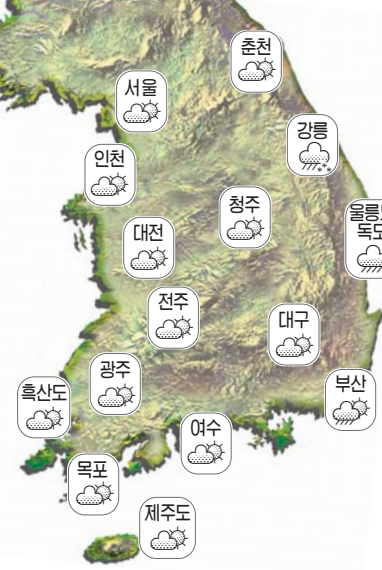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바람이 분다

오전에는 구름 많겠으나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많은위맑음	5/15℃
목포	구름많은위맑음	5/13℃
여수	구름많은위맑음	5/14℃
나주	구름많은위맑음	4/15℃
완도	구름많은위맑음	4/14℃
구례	구름많은위맑음	3/15℃
해남	구름많은위맑음	3/13℃
장흥	구름많은위맑음	4/14℃
순천	구름많은위맑음	5/15℃
영광	구름많은위맑음	3/12℃
진도	구름많은위맑음	4/13℃
전주	구름많은위맑음	3/15℃
군산	구름많은위맑음	3/13℃
남원	구름많은위맑음	2/14℃
흑산도	구름많은위맑음	5/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미물	설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목포	02:5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여수	09:41

◇주간날씨						
날짜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날씨						
최저/최고	5/20	7/21	10/15	8/16	9/15	8/17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18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31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헌화·분향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18일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31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헌화·분향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31주년 행사 시민주도형으로”

행사위 공식 출범식

‘5·18 민주항쟁 31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31주년 행사위)가 18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31주년 행사위는 이날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에서 헌화·분향한 뒤 추모관에서 경과보고 및 주요 사업보고에 이어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추섭 상임행사위원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김준태 5·18기념재단 이사장, 송

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행사에 앞서 광주정신 계승을 다짐하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행사위 관계자들은 5·18 구 묘역을 참배했다.

임 상임행사위원장은 출범 선언문에서 “31주년은 ‘30+1’주년이며, 이는 오월이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를 뜻한다”며 “5·18 민주항쟁의 가치 재정립과 5월 정신 계승에 초점을 둔 시민주도형 추모 행사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시대 상황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평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31주년 기념행사 슬로건은 ‘다시 세상의 빛으로! 함께 역사의 중심으로’이며, 주제어는 ‘관심(Interest)’으로 5·18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됐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농협 사태’ 노트북에 USB 접속 흔적

검찰, 경로 역추적 수사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8일 서버운영시스템 삭제명령의 진원지인 협력업체 직원 노트북에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접속된 흔적을 발견해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검찰은 사태가 발생한 지난 12일 전후로 농협 서버관리 협력업체인 한

국IBM 직원의 노트북에 출처를 알 수 없는 USB가 수차례 접속된 사실을 찾아내고 이 USB에서 노트북으로 삭제 명령어가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IT본부(전산센터)에서 확보한 문제의 USB를 포렌식센터에 맡겨 정밀 감식 및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삭제명령어가 파일 형태로 돼 있는 점에 비해 단순 실수나 사고

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고의로 파일을 생성해 메인 서버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서버에 대한 ‘최고 접근 권한(Super Root)’을 가진 내부 직원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양재동의 전산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안담당 직원들에게 외부 해킹에 대비한 보안시스템 수준과 방화벽 정책 등을 묻고 관련 전산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해킹’ 국내 총책 40대 영장

경찰, 공범 1명도 구속

현대캐피탈 고액 개인정보 해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지휘한 허모(40)씨를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2월

말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모(36·미검)씨를 필리핀에서 만난 자리에서 ‘유명 해커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고 유명회사 개인정보를 해킹해 협박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모의 사실을 알면서도 허씨의 현금 인출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허씨는 지난해 말 정씨

가 언급한 해커 신모(37·미검)씨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조모(47·미검)씨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려 정씨에게 건넸으며 해킹 이후 현대캐피탈이 입금한 1억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외국에 있는 해커 신씨와 정씨, 조씨 등 3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넷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 이들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신해양시대의 리더!

무한한 도전을 이끌어내는 인재가 모인 대학!
새로운 세상으로 길을 열어가는 대학!

국립목포대학교
<http://www.mokpo.ac.kr>